

충경로 600m 구간 '차 없는 거리'로

전주시, 25일 당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이벤트·마켓·놀이정원 등 운영

자동차로 가득한 전주시내 중심도로가 시민들의 도심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리공원으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경로사거리에서 다과교까지 풍패지관(객사) 앞 충경로 600m 구간의 자동차 운행을 통제하고, 차가 비워진 도로를 사람과 문화로 채우는 '차 없는 사람의 거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차 없는 사람의 거리는 도로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장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 차가 사라진 폭 25m, 길이 600m(면적 약 1만5000㎡)의 충경로는 △이벤트정원 △책과사람의정원

△마켓정원 △놀이정원 △만화정원 △거리쉼터정원의 6개의 도시 정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처럼 별도의 행사부스를 설치하지 않는 대신 충경로에서 볼 수 있는 하늘과 가로수 등 풍경에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공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이벤트정원에서는 버스강연과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지며, 책과사람의정원에서는 거리도서관과 펀치쓰기코너를 만날 수 있다. 또, 마켓정원에서는 독립서적과 수공예 관련 플래마켓이 열리고, 놀이정원에서는 보드게임과 공놀이, 길거리노래방,

경연대회 등을 즐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만화정원은 쉬면서 만화책 보는 구간으로 운영되고, 쉼터정원에서는 꽃길과 꽃정원을 만날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캠페인활동, 상담 등 청소년 동아리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시는 이날 차 없는 사람의 거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충경로 해당 구간에 대해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해당 시간에 운행되는 시내버스 노선은 공구거리와 전주천 동로로 우회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임

시 조정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공무원과 경찰,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의 인력이 배치돼 우회도로 안내 등 차량통제에 따른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내버스 우회도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공구거리와 전주천동로, 시청주변 등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한복판에 아름다운 도시정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는 도로의 주인이 차가 아닌 사람이라는 행사의 취지를 각인시켜 차 없는 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에너지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돕는다

시, 내일부터 9월말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올해부터 하절기 냉방바우처 신설로 여름에도 지원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9월 말까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를 지원하는 2019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접수한다.

올해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여름 바우처가 신설돼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요금 차감 방식으로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65세 이상 노인 △만5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이다.

기존 겨울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원되며, 오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9만1000원(여름 5000원, 겨울 8만6000원)이며, 2인 가구는 12만8000원

(여름 8000원, 겨울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5만6500원(여름 1만1500원, 겨울 14만5000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 중 변동사항이 없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 수 변동이나 전출입 등 변동사항이 있는 가구는 반드시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임제준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지원 대상자가 어르신과 장애인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개별전화와 문자, 우편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해도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063-281-2445)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ATM서 현금 훔친 60대 검거

현금지급기(ATM)에 두고 간 현금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8시 16분경 장수군 장수읍 모 현금지급기에서 B모(43)씨가 두고 간 현금 2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개사료를 들고 자유한국당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가 20일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실시된 가운데 사회운동가 박성수씨가 개사료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전거 절도 50대 붙잡혀

자전거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7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고등학교 후문에 세워진 시가 7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재난 위기 대응 포함 안보개념 비상대비역량 강화

전북경찰청, 27일 실시 '을지태극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전북경찰청이 올해 을지태극연습 준비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을지태극연습 준비상황 보고회'는 강인철 청장 주재로 부장, 과장 및 계·팀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열린 보고회는 성공적인 수행

과 준비상황을 확인 및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태극연습은 전시대비 연습과 변화된 안보환경을 고려한 대형 복합재난에 대한 위기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의 비상대비역량 강화와 준비태세를 제고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연습은 문제 해결형 도상 연

습을 비롯해 위기관리 토의 및 실제 훈련으로 이뤄진다.

강인철 청장은 "안보개념이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대형 재해 재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습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실 있는 연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 휘두른 30대 '집유 2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신고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팔목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왜 왔느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모(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10시 17분경 전북 전주 시내 한 빌라에서 동

거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위를 휘둘러 팔목에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이 왜 왔느냐.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금은방 금목걸이 훔친 50대 덜미

금은방에서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목걸이를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7시 5분경 남원시내 모 금은방에서 63만원 상당

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주가 매장 마감을 준비하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